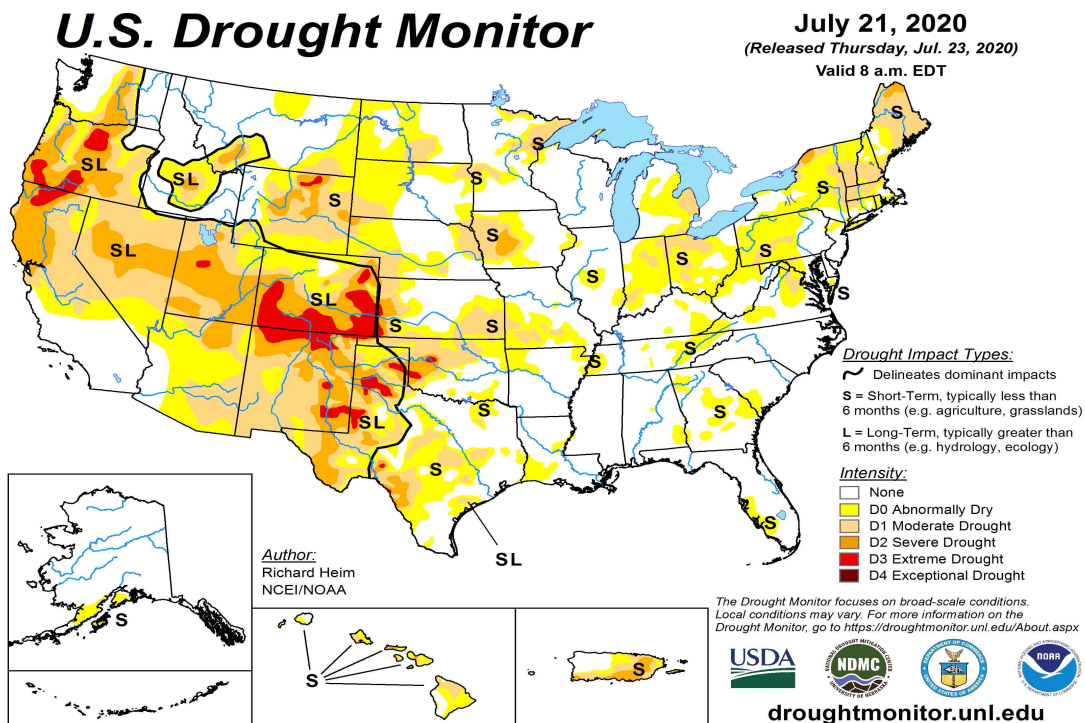


7월 2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30)

□ 미국 기후 현황(7/19~7/25)

허리케인 한나가 인구 밀도가 낮은 텍사스 주 케네디 카운티에서 시속 90마일에 가까운 바람이 계속 부는 가운데 7월 25일 오후에 사태를 일으켰다. 농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딥 사우스 텍사스 전역이었는데 이곳에는 면화 꼬투리가 많이 개화했고 옥수수과 수수 같은 작물들의 수확 활동이 진행 중이었다. 몇 곳에는 10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고 시속 50마일을 넘는 돌풍이 불었다. 한편, 미국 중부와 동부의 나머지 지역은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와 뇌우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수분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여름 작물에게 아주 적기에 온 것이었다. 7월 26일 현재 미국 옥수수와 콩의 72%는 양호-우수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같은 날짜에 쌀 (76%)과 땅콩 (74%)의 약 4분의 3이 양호-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서부의 가뭄에 영향을 받은 지역들 중에서 가뭄이 해소된 곳은 몬순 순환의 발달과 관련하여 대체로 포 코너스 지역 주들의 일부로 한정되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로키산맥 북부까지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넓게 흩뿌려졌지만 강우량은 대체로 적었다. 미국 서부의 3분의 2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대체로 평년에 가까웠으나 대서양 중부와 북부 주들에서는 더운 날씨가 지배적이었다. 북동부 대부분에서 서쪽으로 오하이오 계곡 중부까지 평균 기온 수치는 평년보다 최소 5° F 높았다. 평년보다 더 시원한 상태를 가진 포켓들은 대체로 캘리포니아 중부와 남부 및 오대호 상부에만 있었다.



□ 농업 현황 요약(7/20~7/26)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중부와 동부 대부분으로 퍼졌다. 대서양 중부와 뉴 잉글랜드 일부는 기온이 평년보다 6° F 이상 높았다. 태평양 북서부와 텍사스의 대부분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지만 캘리포니아와 로키 산맥 지역의 대부분은 평년보다 시원했다. 서부의 대부분은 일주일 동안 건조한 채로 있었다. 그러나 플로리다 남부, 대평원 중부와 북부, 멕시코 만 연안, 대서양 중부 및 오하이오 계곡은 평년보다 많은 양의 강우가 기록되었다. 허리케인 한나가 주말에 사태를 일으킨 텍사스 남부 일부는 6인치 이상의 강우를 기록했다.

□ 세계 기후 현황(7/19~7/25)

■ 유럽: 동유럽 전역은 서늘하고 습한 날씨가 계속됐지만 대조적으로 유럽 대륙의 서부 지역은 단기 가뭄이 강해졌다. 연속된 둘째 주에 폴란드 서부에서 유럽 남동부까지에 내린 소나기의 총 강수량은 5~50 mm 였는데 (지역적으로 더 많이), 북해와 발트해에 인접한 농경지 중에서 중간-강한 비 (10~50 mm)가 내린 또 한 지역이 눈에 띄었다. 이런 습한 날씨가 생식기 봄 곡류와 여름 작물들을 위해서 적당하거나 지역적으로 풍부한 토양 수분을 유지해주었고 같은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의 최대 2° C 이하였다. 발칸 반도에서 옥수수, 대두 및 해바라기의 수확량 전망은 양호-우수한 상태를 유지했지만 불가리아 동부와 인근에는 지역적으로 건조한 조건 (30일 강수량이 평년의 50% 미만)이 발달했다. 한편 스페인에서 독일 중부까지 대체로 건조한 날씨 (5 mm 이하)가 우세했고 프랑스 서부 및 남서부의 주요 여름 작물 재배지에서 급성 단기 가뭄 (60일 강수량이 지역적으로 평년의 50 % 미만)이 발달했다. 또한 유럽 남서부에는 평균 기온이 평년의 2~4° C 이상이었고 남프랑스에서는 폭염이 올라가면서 생식기 옥수수와 대두에 대한 수분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한편, 북이탈리아에서는 아주 다양한 수준으로 내린 소나기와 뇌우 (5~65 mm)가 생식기 옥수수와 대두에게 유익을 주었는데 이탈리아의 주요 해바라기 재배지 (이탈리아 중서부)는 건조한 채로 있었다; 후자 지역에 내린 30일 총 강수량은 평년의 10 % 이하에 불과했지만 지하 수분은 아직 양호한 상태에 있었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 최남단 일부에 폭염이 남아 있기는 했지만 비가 북쪽과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대부분에 더 건조하고 시원한 날씨가 찾아왔다. 강한 폭풍 전선 하나와 여기에 따라붙은 한랭 전선이 불가 구역 남동부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느리게 움직이면서 평년 이하의 기온 (평년의 1~3° C 이하)이 벨라루스, 서러시아 및 북우크라이나에 정착했다. 그런 더 서늘한 날씨가 특히 서러시아에서 환영을 받았는데 이곳은 7월 초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옥수수 와 해바라기가 빠르게 생식기에 들어갔고 더 남쪽에서 생장이 더 진전된 여름 작물들에 대한 수확량 전망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카프카스 북부 구역과 인접 지역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의 1~3° C 이상이었다. 이 남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주초에 40° C까지 치솟아서 스타프로폴 (북 카프카스 구역)은 7월 1일 이후로 35° C 이상이 14일이었 다; 이 폭염기는 옥수수의 수술 출현기 및 수염기와 거의 일치했다. 반대로, 남부 구역의 남서 부에 있는 크라스노다르 (7월 1일 이후로 35° C 이상이 8일이었지만 7월 14일 이후로는 1일 에 불과)에서부터 중앙구역 남부 (7월 1일 이후로 35° C 이상이 5일이었지만, 7월 8일 이후로 는 없었음)까지 폭염이 누그러졌다. 최근의 수분 결핍 (3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 미만)이 북 카프카스 지구에서 북쪽으로 불가 지구 남부까지 계속되기는 했지만, 후해 연안에 인접해 서 약한-중간 수준의 소나기 (2~30 mm)가 단기 건조를 다소 해소해주었다. 한편, 장기적으로 수분 공급이 양호했고 옥수수, 해바라기 및 대두가 생식기로 발달하고 있는 중에 제철을 벗어 난 폭염이 없었던 덕분에 - 지난 30일간 지역적으로 나라의 서중앙 일부가 건조하기는 했지만 - 우크라이나에서의 여름 작물의 전망은 계속 양호했다. 그러나 위성-유래 식생 건강 데이 터는 - 폭염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여름 옥수수가 영양기에 있었지만 - 우크라이나 남동부 에서 7월 초 폭염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지역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 동아시아: 동중국 양쯔 계곡 아래쪽에 보고된 다소 더 건조한 날씨가 과도한 습도와 홍수를 완화했다. 그러나 총 강우량 25~100 mm의 비가 받을 일부 침수시키기는 했지만 넓은 지역에 걸쳐 작물들이 계속 잠길 정도는 아니었다. 가장 심한 비가 북쪽을 향하여 북중국 평원의 남 쪽 구역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에서 100 mm 이상 내려서 생식기 여름 작물들에 대해 지나치게 습한 조건을 만들었다. 한편, 소나기 (10~50 mm)가 북동부 대부분에서 계속되었는데 랴오닝 동부의 건조한 지역에서 특히 유익했다. 반면, 헤이룽장성, 길림, 랴오닝의 가장 서쪽 현들과 북동부 내몽골에 인접한 현들에서는 시기 적절하지 못했던 폭염 (35° C 이상의 낮 최고 기온) 과 건조가 생식기 옥수수와 대두에게 스트레스를 가했다. 그밖에 한반도를 가로질러 일본의 최북단을 제외한 일본의 모든 지역까지 뻗어서 강한 소나기 (50~100 mm 또는 그 이상)가 내 렸다. 그런 습한 날씨는 북한 내부 및 남한의 국경 지역을 따라 가뭄 조건을 완화시켰다.

■ 호주: 밀 벨트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 (1-10 mm)가 먼 남쪽 지역에 있는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에게 물을 적절하게 공급했다. 대조적으로 더 멀리 있는 내륙의 주요 겨울 작물 재배지에는 국지성 소나기 (대체로 5 mm 미만)가 내려서 영양기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들에게 추가 수분을 거의 공급하지 못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밀 벨트 대부분에서 강우량이 평년을 밑도는 경향이 있었다. 영양기 성장을 촉진하고 수확량 잠재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더 많이 비가 와야할 것이다. 밀 벨트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은 평년의 2° C 이내였고 최고 기온은 대체로 섭씨 높은 10도대와 낮은 20도대에 있었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남부 경작지에서 계절을 벗어난 강한 소나기가 출현 중인 겨울 곡류를 위한 수분을 증가시켰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의 다수확 밀 지역에 내린 총강우량은 10-50 mm였는데 비슷한 양이라 팜파의 소수 경작지에도 내렸다. 적당한 비 (10 mm 이상)가 내린 몇 개의 포켓을 제외하면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에서 볼리비아 및 파라과이와의 국경까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나라의 주요 농업지대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근처 또는 평년 이상이었고는 엔트레 리오스에서 포르모사 동부까지 평년에서 가장 많이 벗어난 수치 (+4° C)를 보여주었다. 낮 최고 기온은 앞서 언급한 남부 겨울 곡류 벨트의 섭씨 10도대에서부터 차코 및 포르모사 인접의 30도대 중반까지 다양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7월 23일 현재 94% 수확되어 작년보다 12 포인트 앞섰다. 밀은 작년의 89% 대비 94% 파종되었고 보리는 작년의 92% 대비 91% 파종되었다.

■ 브라질: 브라질 중부와 남부의 주요 생산 지역에서 맑고 대체로 따뜻한 날씨가 옥수수, 면화 및 밀의 빠른 성장을 촉진했다. 리오 그란데 도 술과 북동부 해안을 따라 있는 몇 개의 국지적인 강우 포켓 (10 mm 이상)을 제외하면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았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마토 그로소까지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부근 또는 평년 이상이었는데 북동부 내륙은 다소 온화한 조건을 보였다. 파라나 북부에서 북쪽으로 마토 그로소와 바히아 서부에 인접한 면화 지역까지 낮 최고 기온이 섭씨 낮은 30도대까지 올라갔는데 파라나와 리오 그란데 도 술 전역은 기온이 대체로 20도대로 제한되었다. 결빙은 보고되지 않았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7월 20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는 17% 수확되었고 남은 작물의 78%는 성숙기에 있었다; 파라나와 리오 그란데 도 술 모두 밀 파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 한편, 2차 작물 옥수수는 7월 24일 현재 마토 그로소에서 87% 수확되었다고 보고되어 작년보다 7 포인트 뒤쳐졌으나 면화는 27% 수확되어 작년 (25%) 대비 약간 앞섰다.